

“관광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시급”

제주연구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지역 영세 관광기업, 관광융합기업으로 육성해야”

제주 관광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해 제주특정 지역을 ‘스마트관광 시범지역’으로 조성해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도내 중소 영세규모의 관광기업을 ICT 관광융합기업으로 적극 지원 육성해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12일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관광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제주관광산업을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해 수행한 ‘제주 스마트관광활성화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제주 세계 각국의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이 시기 비대면 관광수요 증

가로 ICT 기술과 접목한 온라인서비스, 언택트 상품과 같은 스마트관광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 관광시장을 주도할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여행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의 여행패턴을 분석해 정부정책 및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웨스트 잉글랜드는 주요 문화유산에 모바일 VR 시스템을 도입하고 5G 네트워크를 통한 3D 모션 추적기로 관광객별 주요 콘텐츠를 구현 관광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정책의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서울·인

천·제주 특화된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연구원은 제주관광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선 관광빅데이터 수집·개발을 위한 관광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스마트관광 콘텐츠 확대를 통한 제주관광 매력도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스마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스마트관광은 제주자치도 관광국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그 영역이 방대하므로 관광국을 컨트론타워로 미래전략국·환경보전국·해양수산국·농식품국 등 관광유관 실국 단위의 확대관광전략회의를 운영해 관광콘텐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정책공유, 중복성 배제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개발행위허가 231곳 대상 제주시, 사업 추진 등 점검

제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231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20-2021년도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 추진 시 불법 행위 여부, 허가 내용과 사업 추진 일치 여부, 인접 토지 피해 등이다.

그 결과 준공 완료된 사업장은 39개소였고 사업 추진 중인 곳은 115개소였다. 또한 사업 기간 내 미착공 또는 공사 완료 후 준공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57개소였고 사전 사업 취하 등 사업장은 20개소 나타났다. 제주시는 미이행 사업장 57개소에 대해선 사업 기간 연장이나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2021년도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94곳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희뿌연 제주시내 13일 제주시 미세먼지농도가 짙어져 나뭇상대인 가운데, 도두봉에서 바라본 제주시내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둘러싸여 있다. 이상국기자

성산을 갯벌식생 복원사업 2024년까지 총 144억원 투입

서귀포시 성산을 지역에 갯벌식생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 성산을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간 총 144억(국비 101억과 지방비 43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염생식물(잘피, 순비기) 식재를 통해 갯벌

식생을 복원하고 탄소흡수능력을 강화해 탄소중립에 기여해 해양생물의 서식지 제공과 관광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해양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및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운영 발주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기획/서귀포 선도농업 현장을 가다 (5)호라산밀생산자협의회

“제주, 기능성 호라산밀 주요 생산지 될 것”

과잉생산 월동채소 대체작물로 기능성 호라산밀이 제주 땅에 뿌리를 내렸다. 서귀포시 안덕·대정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호라산밀 생산자협의회가 지난 11월, 145ha 규모의 농지에 종자를 파종하고 내년 5-6월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12일 안덕면 동광리 소재 호라산밀을 파종한 밭에서 박태관 회장과 홍성봉 총무, 회원인 안홍범 안덕농협 이사를 만났다. 현장은 파릇하게 겨울바람을 뚫고 올라온 새싹들이 15~20cm가량으로 자라나 들녘을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난 12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호라산밀을 파종한 밭에서 만난 호라산밀생산자협의회 홍성봉 총무, 박태관 회장, 안홍범 안덕농협 이사(왼쪽부터). 11월 파종한 호라산밀의 새싹이 파릇하게 올라와 내년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백금탁기자

콩·메밀 이어 이모작 가능... 내년 첫 수확 고소득 기대 서귀포시 과잉생산 월동채소 대체작물 육성 지원 한몫

이들은 호라산밀의 기능성은 물론 제주 토지에 적합한 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특히 대부분 농지가 400~600m의 중산간에 위치하면서 월동무 등 월동채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렘이 묻어났다.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 2곳에서 실증재배를 했는데, 단백질 함량과 셀레늄이 풍부한 기능성 호라산밀이 월동채소를 대체할 수 있을 지와 농가소득을 얼마큼 올릴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호라산밀생산자협의회는 통밀 형태로 40kg 기준, 7만원에 해당 업체와 전량 계약재배를 체결하며 판로문제에 해결한 상태다. 이는 현재 제주에서 생산하는 맥주보리의 수매가격 5만1000원(보조금 1만2000원 포함)에 견줘 1만9000원(37.2%) 높다. 여기에 생산량도 호라산밀이 맥주보리에 비해 120%정도로 예상되며 농가소득면에서 호라산밀의 경쟁력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라산밀의 대단위 재배는 서귀포시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시는 생산자 단체와 구매업체 간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 유통 판매를 추진하는데 가교 역할을 했다. 또한 안정적인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종자 구입비와 농약 드론 방제비 등 ha당 100만원을 지원했다.

호라산밀 재배의 가장 큰 특징은 파종을 한 이후에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만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11월 중순에 파종해 다음해 5-6월에 수확할 수 있어 콩, 메밀 등 여름작물에 이어 이모작이 가능하다. 특히 겨울철 집중되는 양배추, 무, 당근,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작물에 견줘서도 냉해에 강하고 소득 보전이 기대된다. 호라산밀은 셀레늄이 풍부해 각종 암 질환 예방에 좋고, 식이섬유 함유율이 높

아 혈중 당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기능성 작물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호라산밀 생산자협의회는 또다른 도전에 나선다는 각오다.

박태관 회장은 “호라산밀은 잡곡, 빵, 과자 등의 제품으로 앞으로 6차산업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밀 수입을 줄이고 수매 보조금 및 경관 직불금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토대로 제주가 호라산밀의 주요 생산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제주의 여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기 때문에 호라산밀 알맹이가 잘 영글 수 있다는 감점도 충분히 있다는 견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청년농, 농가경영 개선지원 “효과있네”

도·농업기술원 컨설팅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청년창업농 대상 농가경영 개선지원 컨설팅 결과 93.3%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소득

이 15.9%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관내농업인 및 청년창업농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총 47회 컨설팅을 추진했다. 컨설팅 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93.3%로 호응을 보였고 농가소득이 연평균 15.9%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컨설팅에 대한 전문지식 능력 평가항목은 96.6%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컨설팅트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농가 역량과 농장 상황 등 맞춤형 컨설팅이 더 큰 성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윤기자

장전 마을지발간 기념식

모시는 글

장전리의 역사와 문화, 교육, 마을주민의 삶의 모습등을 집대성 한 장전마을지가 발간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한 「마을지발간기념식」을 다음과 같이 갖으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장전리사무소 2층 대강당

〈식순〉 - 식전행사
- 내빈소개
- 국민의례
- 추진 경과보고
- 감사패 공로패 전달
- 기념사 및 축사
- 기념비 제막
- 폐회 / 오찬

장전리장고원삼
장전마을지편찬위원장 강병언

- 초대 의 글 -

늘 그리움을 만드는 행복한 기다림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귀하를 초대 합니다.

우리 동려평생학교와 청소년학교에서는 동려와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을 모시고 2022학년도 졸업식 및 수료식을 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2022년 12월 15일(목) 저녁 7시

어디서
동려평생학교 강당에서

무엇을
1년의 결실 졸업식 및 수료식

동려평생·청소년학교장
안식울림

5년 “우수훈련기관 지정”

전액 무료 내선전기실무 및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영세사업자
졸업예정자/휴학생 등 대부분 가능

교육기간 2022년 12월 28일 ~ 2023년 7월 24일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내선공사 및 소방 통신설비

문의 064-749-3434

취업처 다수확보 전액무료(90% 취업률 달성)
진과정 기능사실기 합격률 95% 달성

주식회사 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won.com (신제주 은남동 버스정류소 앞)
T. 064-749-3434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